



2025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상황실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촉진을 위한 2025년 제1차 전북 과학기술위원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도, 과학기술 진흥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올해 제1차 과학기술위원회, 성장동력발굴 계획 확정
글로벌 생명경제 구현 위한 첨단산업 육성기반 마련
산업혁신생태계 조성 등 산·학·연·관 상생협력체계 강화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촉진을 위해 제10기 과학기술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

도는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위원회 성과점검 및 제10기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도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9명 및 20여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주요 연구기관장과 대학 등의 각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주요 기능은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도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성장동력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위원회 산하의 연구회를 구성·운영하며 매년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책사업의 발굴·기획 및 국가예산반영 등 활동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동력 과제 636건을 발굴해 국가사업 167건 반영

등 국비 9천705억원 확보에 기여하며 전북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글로벌 생명경제'비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방위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유망한 신기술·신산업 성장동력 발굴을 집중, 전북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AI, 바이오 등 글로벌 첨단산업기술 중심 여건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신산업 중심으로 연구회의 범위를 확대 구성·조정하는 등 발빠른 준비와 탄력적인 대응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첨단모빌리티 ▲탄소융복합 ▲지능형 기계·조선 ▲에너지수소 ▲첨단바이오 ▲K-방위산업 ▲이차전지·반도체 ▲탄소중립 ▲재난·안전 ▲문화관광·콘텐츠 부문 등 모두 10개 연구회로 구성됐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의 집중육성을 위해 지역 주도형 대형 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 확대와 다양한 융복합 과제 발굴을 통해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등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에 특화된 과학기술 발굴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최준호 기자

도, 서해안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고창 부안 등 서해안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도, 서남권 해상풍력 1GW 규모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쾌거
총 14조4천억 원 투자...원전 2.5기 버금가는 발전 사업
고창(200MW) 민간 공모, 부안(800MW) 공공투자 진행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전북, 신재생에너지 허브 도약...해상풍력 산업 본격화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1GW 규모 '확산단지 1'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0.4GW 시범단지에 이어 확산단지가 확대되면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4천억 원을 투자해 2.46GW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는 원전 2.5기에 버금간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GW 규모의 확산단지는 기존 실증단지(60MW)와 시범단지(400MW)에 이어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고창과 부안 두 지역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창 인근 해역 200MW 규모의 단지는 민간 발전사업자를 공모해 조성하고 부안 인근 해역 800MW 규모 단지는 발전공기업 주도의 공공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엔 재생에너지 공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계획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라 지역사회도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해상풍력 발전이 본격 가동되면 20년간 매년 REC 배당금이 지급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 힘써왔다. 협의회를 통해 어업권 보호, 해양환경 문제 해결, 지역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회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중량물 부두 지내력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 추가 지정은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농생명 기술 사업화 속도 낸다

'농생명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 협의회' 첫 정기회의
연구기관·기업 협력체계 구축...기술 수요조사 맞춤형 매칭 강화
'농생명 기술 SOS 센터' 운영...현장 밀착 지원 확대

전북자치도는 13일 '농생명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 협의회'의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농생명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전북자치도 △도 농업기술원 농생명분야 기술사업화 담당 부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

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매 짝수 달 둘째 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기업 리스트를 확보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요조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기업 현장 방문, 이메일 조사 등을 활용해 보다 정밀한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기술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점 접수·발굴을 위한 '농생명 기술 SOS 센터'를 전북바이오융합산

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개설, 도내 농생명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시적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연구기관은 보유 중인 유망 기술을 정리해 도내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승하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도내 농생명 기업의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연구기관 보유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농생명 기술에 관심을 갖고 기술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다시 확인하셨습니다니까?

겨울철 화재 예방법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전기히터, 장판, 전기 열선등 화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전기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 해요!

꺼진 불도 다시보기

담배꽂초 담배불로 큰 불이 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 해요!

1차량 1소화기 갖기

안전한 차량 운행 을 위해 1차량 1 소화기 를 비치 해요!

우범기 시장, ‘K리그 개막 임박’…월드컵경기장 점검

전북현대모터스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격려·잔디 상태와 조명 시설 등 점검 나서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북현대모터스FC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일 민생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홈경기 개막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구단 관계자를 격려하고, 경기장 관리주체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먼저 우 시장은 축구팬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잔디 상태와 조명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전북현대모터스FC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구단 관계자와 이연상 이사장을 비롯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프로축구 발전과

지역연고 구단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히 전주월드컵경기장에는 지난해 역사기념관과 팬샵 등이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인 만큼 전주시민과 축구팬들이 전북현대와의 지난 추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기억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지난 2023년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 동측의 경관조명과 가로등 조명을 전북현대의 팀컬러인 초록빛 LED조명으로 교체한 데 이어, 지난해 나머지 서·남·북측 관중석 출입구 경관조명과 보안조명을 모두 초록색 LED로 교체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쾌적한 경기 관람을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지붕마감재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현대모터스FC 주말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북현대모터스FC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홈경기 관람객을 위한 특별노선 ‘1994’번 버스도 지속 운영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전북현대모터스FC 구단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구단과 전주시가 30년간 이어온 인연을 넘어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에 행정력 ‘집중’

청소행정 녹지정책 및 정원조성 등 3대 목표 및 6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전주시가 올 한해 안정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정원·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녹색도시를 구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13일 자원순환녹지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자원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한 청소행정·산림녹지, 공원환경 분야의 3대 목표와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안전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체계적인 녹지정책 및 정원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도시 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산림 및 공원환경 조성이다.

먼저 청소행정 분야에서 시는 지난해 개선된 권역수거체계 청소행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해

청소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적절히 투입해 청소 차량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노사소통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시는 대화용기 관련 사업을 확대해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자원순환분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주권 광역 소각자원센터의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을 통해 잔재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광역폐기물매립장 순환이용정비

사업을 통해 매립지 재확보를 추진하는 등 자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인식개선에 힘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도심 내 가로수와 가로화단 등을 정비해 효율적인 녹지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덕진공원 입구에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광장이 조성돼 개방감을 확보하고 호수 조망권을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덕진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전주시 대표관광지로 조성하고, 완성질물 한빛마루 공원도 전망대, 힐링센터는 물론 초록바위에 인공폭포를 조성해 완성벽과 연계되는 한옥마을외에 또다른 새로운 관광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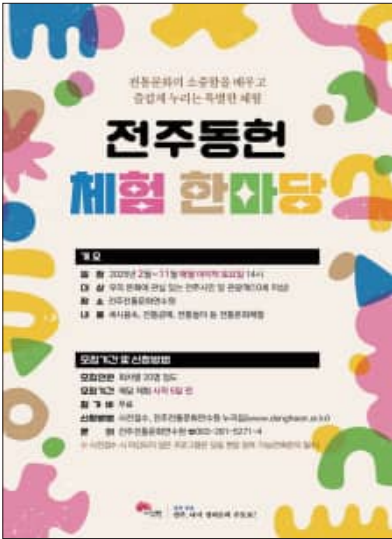
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시는 높아진 정원에 대한 관심 속에서 ▲전주 지방정원 조성 ▲정원식물 지원센터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정원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전문가 양성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제5회 전주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관광자원화도 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노인일자리로 ‘초록정원관리사’ 사업을 본격 추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 전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영선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올 한해 전주시가 더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 운영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점차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된다.

먼저 오는 22일에는 ‘소원 비는 정월, 세시풍속 즐기기’를 주제로 전통음식(부럼, 귀밝이술, 전통차)과 전통놀이(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매월 ▲전주동헌에서 맛보는 전통간식(3월) ▲전주동헌에서 배우는 우리가락(4월) ▲단오에 즐기는 전통놀이(5월)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전주사또 다과상(6월) ▲전주한지에 그리는 동양화(7월) ▲국가무형유산과 함께하는 부채만들기(8월) ▲독서의 계절에 만드는 매듭캘리(9월) ▲전주동헌 우리 놀이터(10월) ▲전주동헌에서 만나는 자개공예(11월) 등 전통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www.dongheon.or.kr)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체험비는 무료이며, 사전 접수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271~4)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체험이 진행되는 전주동헌은 조선 초 건립된 조선시대 사또의 업무 공간(현재의 전주시청)으로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이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시장, 전북지방환경청장에 명품하천 지원 요청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구간 국가사업 적극 추진 요청 및 ‘전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 관심 부탁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북지방환경청을 찾아 전주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13일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송호석 청장을 면담하고, 국가하천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와 하천기본계획,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현황, 국가하천 승격의 이점 등을 설명했다.

이에 우 시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전주천에 추가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일상을 담아낼 수 있는 수변 힐링명소 조성이 필요한 만큼, ‘전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는 전주시민들의 젖줄인 전주천과 삼천이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전시와 공연, 체험, 놀이,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명품하천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는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한벽요에서 싸전다리 구간에 한옥마을 수변 낭만터를 조성하고, 백제교 인근에 서신 수변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등 하

천 내 친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우 시장은 주요 사업내용 중 치수사업분야인 홍수방어벽과 산책로 등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에 국가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명품하천을 만들어 역사문화도시, 관광도시로 명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윤동욱 전주부시장,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등 만나 당위성 설명 및 도민들 유치 열정 강조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이 이상현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을 만나 전주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13일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사이클연맹 2025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취임식에 앞서 이상현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및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났다.

윤 부시장은 전주의 올림픽 유치 당위성 및 장점을 설명하고, 전주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시장은 시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윤 부시장은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경기시설을 국제경기 수준에 부합하는 시설로 조성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과 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준비와 열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동욱 전주부시장은 “2036 하계올림픽은 전주가 세계와 만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주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혹한기 호남권 특수구조대 합동훈련 실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남원시 산내면 토비스야영장에서 혹한기 저수온 및 얼음 밀 이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지진대비 119특수대응단 동계 수난구조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북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를 비롯해 호남특수구조대, 광주·전남 특수구조대, 제주소방본부가 참여해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호남권역 통합대응 훈련은 매 분기 실시되며 지진 발생을 가정한 재난환

경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수난구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훈련에서는 ▲찬물잠수 적응 ▲수중수색 및 통신 ▲구조·인양 절차 숙달 ▲빙상구조 등 혹한기 특수수중탐색 및 구조기법 정보 공유를 통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박경수 119특수대응단장은 “훈련을 통해 호남권역 특수구조대(단)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전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해 재난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PS, 전북도와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맞손’

도-NPS-TP, 가명처리 및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가명정보 안전 처리 통해 데이터 활용 선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통해 적정성 검토 활성화…기관간 전문성 강화 가명정보 활용협력 확대 기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환)은 개인 정보의 가명 처리 적정성 강화 및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북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최대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는 빅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민·관·학계 등에서 공단 보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확대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안전하게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적정성 강화 및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상호협력 ▲가명 처리 협력 개선점 발굴 및 성과 공유 ▲입작원 개인정보 인식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이 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처리목

적의 적합성, 위험성 검토 및 가명처리 결과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적정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요청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협약 참여기관은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가명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나아가 민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훈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2025 세계정부정상회의서 ‘Global Future Fit Award’ 수상

우간다 농업연구청 공동 수상…정부 간 협업으로 ‘오렌지 시범 마을 사업’ 성공 모형 구축 인정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11일부터 13일(현지시간)까지 두바이에서 개최한 ‘2025년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우간다 농업연구청(청장 요나 바구마)과 ‘Global Future Fit Award’ 공동수상 기관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Global Future Fit Award’는 세계정부정상회의가 정부 간 국제 사업이나 새로운 계획을 선정해 수여하고자 올해 신설한 상이다. 농촌진흥청과 우간다 농업연구청이 첫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수상기관 대표로 우간다 오켈로 오리엠 외교부 장관과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김항용 국장이 참석했다.

세계정부정상회의는 2013년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의 주도로 설립돼 해마다 각국 정부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가 모여 국제적 지식을 교류하는 국제 토론회다. 올해 회의에는 국가 정부 수반을



농촌진흥청은 두바이에서 개최한 WGS에서 우간다 농업연구청과 Global Future Fit Award 공동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김항용 기술협력국장과 우간다 오켈로 오리엠 외교부장관.

비롯해 장관,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등 6,0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정부정상회의의 부의장이자 두바

이 정부발전미래부 장관인 오후드 알 루미는 “정부 간 협업과 식량안보, 지속 가능성 실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

로 평가해 200개 프로젝트 중 ‘코피아(KOPIA) 우간다 오렌지 시범 마을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피아(KOPIA) 우간다 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테소(Teso) 지역에서 오렌지 시범 마을 사업을 추진했다. 빗물을 저장하는 ‘1나무 1저수 시스템’ 및 오렌지 반점병 방제 기술 등을 보급해 생산성을 증대했고, 농가소득으로 연결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개발협력의 날’ 기념 국제개발협력 유공 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23년에는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ODA)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됐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김항용 국장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준호 기자

농신보 남원센터 올해 2,200억 보증 지원

남원·임실·순창·장수 대상…찾아가는 현장보증 지원센터 운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 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로, 농신보 남원센터)는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농림수산업자들의 실익증대를 위해 올해 약 2,2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으로, 농신보 남원센터는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지역(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내 농협은행, 농·축협 및 산림조합의 총 76개 관할금융기관에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농신보 남원센터는 작년 한 해



이성로 센터장

1,997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해 어려운 농업·농촌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올해도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보증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성로 센터장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도 농신보 남원센터 직원들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맡겨진 소임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혈액원 직원 일동,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강진석) 직원 일동이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진석 원장은 “혈액원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한 특별회비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전달된 금액

이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혈액원과 지사 임직원 모두가 올해도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도 적십자회비는 3월31일까지 2차 집중모금을 실시하며,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최준호 기자

농촌진흥청, 지능형 농장 빅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지원 모색

김병석 연구정책국장, 13일 전북 익산 빅데이터 수집 지능형 농장 찾아…정보 활용 기술 살피고 관련 기술개발 지원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환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한 지능형 농장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비닐하우스 23연동(1만㎡) 규모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 재배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원재료 상승으로 증가하는 경영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로즈벨트 정병두 대표는 “온실에서 수집하는 환경, 생육, 수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13일 익산의 ICT 도입 토마토 재배농장을 찾아 기술 활용을 살피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확량 정보를 분석해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고온기나 저일조 조건에

서도 안정적인 토마토 수확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능형 농장의 환경, 생육 정보를 기반으로 비료, 에너지 비용 등을 절감하는 재배 관리 및 경영 정보 등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김 국장은 “미래 농업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보에 기반한 재배 관리 기술 등을 개발, 확산해야 한다”며 “지난 5일 발족한 ‘데이터 분석·환류 촉진 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협업,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기간·금액 자유설정 디지털 전용상품 ‘내맘 쪽 정기예금’ 출시

1개월 단위 금액·기간 자유 설정…상품 가입 후 응모 시 추첨 통해 경품 증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가입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상품 ‘내 맘 쪽 정기예금’을 출시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 맘 쪽 정기예금’은 원하는 기간,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1개월~12개월 월단위로 선택가능하며 최저금액 1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65%~연 2.95%이며,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0.3%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고 연 2.95%~연 3.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은 가입 당일 전북은행 모바일뱅킹 첫거래 고객 0.1%, 마케팅 활용 동의 고객 0.1%, 전북은행 입출금계좌

이용고객 0.1%이다.

또한 이번 상품은 계약기간 중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최대 2회까지 분할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31일까지 ‘내 맘 쪽 정기예금’ 1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스텐바미미(1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10명), 배달

의 민족 3만원권(3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매(300명)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응모는 2월 17일부터 전북은행 모바일앱 ‘축복크’에서 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예금가입 고객들의 금융거래 특성과 니즈를 분석해 가입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 [알림]

대림석유(주) 직영 3공단주유소 오픈식

▲일 시 : 2025. 2. 22(토) 오후 2시

▲장 소 : 3공단주유소(완주산업단지)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42

▲문 의 : 대림석유(주) T.063)261-5151

도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확대…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유아학비 추가 지원 4세까지 확대·사립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유지…“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유아학비 추가 지원비를 올리는 4세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 및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내 공·사립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모두 지원한다.

추가 지원비는 유아 1인당 5만원이다. 내년에는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책임교육과 보육 강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도

계속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아 1인당 16만5,000원을 지원해 공·사립 차별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아 교육비 확대 지원에 따른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지도 컨설팅단을 구축해 연 2회 이상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아학비 추가지원비 확대와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유아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내 교육수혜자들에게 밀도있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단원 공개 모집

지휘자 1명·단원 10명 채용… 오는 18~20일 원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장애인 오케스트라 출범을 앞두고 단원모집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방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장애인 오케스트라 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에 따라 지휘자 1명과 장애인 단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예술활동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올 상반기 창단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지휘자는 1명 채용 예정으로 연령, 성별, 주소지 제한이 없다. 단원은 현악기 5명, 관악기 3명, 타악기 1명, 건반악기 1명 등 총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들어 있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1차시험(서류전형)과 2차시험(실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맞춤형 훈련 수요한 자에 한해 임용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꿈과 끼를 갖춘 장애인 연주자들이 장애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호원대·군산 청소년, K-POP컬스타 뮤지컬 공연 성료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지난 12일 군산시민회관에서 군산시와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사업을 마치고, 그에 따른 수료식 및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뮤지컬 성과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진로 체험사업은 호원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군산시 복지교육국,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주최, 소통협력센터 군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향

후 진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의 교수진과 학생 조교들이 함께 참여한 이론-실습이 결합된 K-컬쳐 분야 특화교육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료식 및 뮤지컬 성과발표회는 호원대 강희성 총장과 군산시 관계자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30여명의 참여 학생들에게 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음을 축하하며 수료증을 전달했다.

/최성민 기자



또한 이승숙 직원은 국가장학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관리를 위한 전산

가장학금 활성화와 제도개선 추진에 앞장섰다.

이승숙 직원은 “그동안 학자금 지원 업무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경영학과, 호·영남 최초 4주기 경영학교육 ‘5년 인증’ 획득

최초 획득 이후 20년 연속 유지… 경영교육 질 우수 입증 “교육·전문 인력 양성 위한 투자와 노력 아끼지 않을 것”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는 호·영남 최초로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으로부터 4주기 통합인증 심사결과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경영학교육인증제는 경영학 교육과정 에 대한 인증을 통해 경영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기업·사회·국가 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다.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경영학 교육 여건과 향후 교육개선 계획에 대해 현실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전북대 경영학과는 올해 4주기 통합심사에서 학부, 일반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모두 인증원 평가기준을 충족해 최

고 등급인 5년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2009년 8월 최초 인증 자격을 획득한 이후 2029년 8월까지 20년 연속 5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한규식 경영학과장은 “전북대 경영학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교육으로, 학과의 교육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면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경영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은 전국 경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미션, 비전 및 목표, 교육과정 및 학습성과관리, 학문 연구 및 사회적 영향 등 9개 영역을 평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으로부터 4주기 통합인증 심사결과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가 기준으로 하여 ‘인증(5년인증)’, ‘인증 을 부여하고 있다.

가, 나(2년인증)’ 또는 ‘인증 보류’ 등급

/최성민 기자

전주대학교,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75명 합격생 배출

매년 임용고시 합격률 35% 이상…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과 임용고시 대비 사제동행 특강 덕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사범대학은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75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전국 평균 경쟁률은 6.9:1에 달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주대학교 출신 합격자들

은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사범대학의 체계적인 대학 자체 집중 특강 및 맞춤형 임용고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과 심층 면접 능력을 강화했다.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마병 학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맞춤형 교육과 철저한 임용고시 대비 사제동행 특강 덕분”이라며 “매년 임용고시 합격률을 35% 이상(7개 학과, 입학정원 200명)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과 미래 역량을 가르려는 노력이며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학생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결실로, 앞으로도 교육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이승숙 직원, 학자금 지원 업무 유공자 선정… 교육부 장관 표창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이승숙(학장복지팀) 직원(사진)이 2024년도 정부

학자금 지원 업무 유공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승숙 직원은 2010년 5월부터 학생복지팀에서 학자금 지원 업무를 추진하

며 대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전기난로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수칙**

- 난방용품은 공인인증 제품 사용
- 멀티콘센트 허용전력 80% 만 사용
- 전기장판, 히터 등 사용 후 반드시 전원차단
- 주변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정읍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시행

정읍시가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차량(의료기관·민간이송업체 구급차)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로,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및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의약관리팀(063-539-6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이주배경 주민 가족 만남 지원

익산시가 지역 이주배경 주민의 가족 만남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자녀돌봄 부모초청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 방문이 어려웠던 결혼이민자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을 앞둔 가정에는 부모 초청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된 가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대상 가정에는 ▲왕복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국내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부모초청 지원사업 대상 가정에는 왕복 항공료와 국내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을 포함해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관련 서류를 갖춰 익산시가족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가족센터 누리집(iksan.familynet.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838-604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비대면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정읍시가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한 달간 비대면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문자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스마트폰이나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전 자격 요건을 검증한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자동 전화응답시스템(ARS)도 운영된다. ARS(1334-내선1)에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도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 신청 시 농지 소재지의 읍·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경작 위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3년 이상 등록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준수 사항을 꼭 확인한 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2대 추진목표… ‘글로벌 신산업·K문화관광 거점’·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조성’

군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임준 시장 주재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 핵심 정책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도시환경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 공유됐다.

특히 민선 8기 4년 차인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시는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다.

먼저 올해 군산시는 ‘글로벌 신산업·K문화관광 거점’과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조성’을 2대 추진목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경제 활력 및 정주 환경 개선’,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의 3대 전략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첨단 농수산산업 육성·국제물류도시 기반 구축·새만금 중심도시 확립·민생경제 회복 주력·육아 및 교육 기반 강화·춤추하고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수준 높은 의료환



군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 구축·재난재해 제로도시 구축·생태환경 인프라 구축

올해 추진되는 세부 사업은 역점사업 93개, 주요사업 176개, 일반사업 396개로 총 665개 사업으로 정해졌다. 이 중 85개의 신규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미래산업 및 경제 활성화 분야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구축’ ▲첨단산업 유치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수산 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

성’ ▲정주 환경 개선 분야의 친환경 도시구축을 위한 ‘철길소 완공 및 스마트 도시 조성’ ▲공공 의료·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군산전북대병원 개원’과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시민 휴식 공간 확대를 위한 ‘월명공원~은파호수공원 트레킹코스 연결 및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친환경·스마트 교통 및 안전 인프라 구축 분야의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 안전망 구축’ 등이 있다.

강임준 시장은 “2025년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성과를 도출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함열농공단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소재·부품 산업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상속세 면제 가능성 등 혜택

익산시가 함열농공단지에서 ‘소재·부품 산업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함열농공단지 9만 평 규모에 소재부품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6월 제3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바이오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은 것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1단계 특구 지정에 이어 2단계 추가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산업 지원을 통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기

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산업은 제조업의 핵심 기반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2개 기업과 총 52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에 특구 계획을 제출했다.

추진 대상 산업단지는 2019년 준공된 익산함열농공단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함열농공단지 조감도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구 지정 시 주요 혜택으로는 ▲세제 감면 ▲보조금 확대 ▲상속세 면제 가능성 등이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공비축미 품종 ‘신동진·새청무’ 확정

신동진 품종 2027년 공공비축미 품종 제외 예정… 신품종 ‘신동진1호’·‘전주684’ 대체

정읍시가 내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신동진’과 ‘새청무’를 최종 선정했다. 신동진 품종이 2027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될 예정인 만큼, 이를 대체할 신품종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지난 11월 2026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선정심의회를 열고 지역 농업인의 선호도와 품질, 지역 적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품종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시 관계자들

비롯해 농업인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관계자 등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동진은 정읍에서 대표적으로 재배되는 벼 품종으로 농가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다.

새청무는 내병성과 내도복성이 뛰어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미질이 우수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2027년부터 신동진 품종을 대

체할 신품종인 ‘신동진1호’와 ‘전주684’에 대한 특성 설명과 보급증 종자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신동진1호와 전주684는 기존 신동진의 우수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병해충 저항성과 재배 안정성을 높인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 본격 추진

36억 원 예산 투입… 이달 중 재해복구사업 착공·5월 말까지 추진 계획

군산시가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빙과 동시에 속도를 내고있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10일 군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500년 빈도의 1시간 최대 강우량 131.7mm(어청도 146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군산은 관내 57개소에 산사태 10.15ha, 임도 0.51km 규모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시는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 및 토지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도 완료하였다.

이번 사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항구복구 추진 정책의 하나로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이달 중 재해

복구사업에 착공하며, 장마 전 5월 말까지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취약지역, 임도시설, 사방시설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아동 안심등교 수호대’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구성… 안심귀가 지원 사업 추진 검토

익산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 안심등교 수호대’ 사업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올해 새학기부터 7개 초등학교에 ‘안심등교 수호대’ 48명을 배치해 사고 없이 안전한 등교를 책임진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아동 안심등교 수호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시범 도입된 사업이다. 수호대 한 명이 한 어린이와 일대일로 짝이 돼 집 앞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동행한다. 수호대는 노인 공익 활동 사업(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돼 있다.

시는 수호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보강할 방침이다. 특히 수호대가 업무 도중 아동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호대는 학교 인근 우범지역이나 공사장 등 위험지역을 순찰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최근 들어 학부모와 어린이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교와 학부모,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하교 시에도 안심귀가 지원을 추진하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 성료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정책을 소개했던 ‘2025 을사년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 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신년 대화는 총 2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2일간(1월7일~2월11일) 이어졌으며,▲강임준 군산시장의 신년 인사 ▲주요 시정·시책 설명 ▲시장과 주민의 현장 대화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 속 불편 사항부터 읍면동별 주요 현안 및 시정 현안까지 폭넓은 의견이 교환됐고, 작년 신년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안내해 주민들의 행정 신

뢰도 제고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신년 대화의 주요 화두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였다. 많은 시민들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에 대해 질문을 했고, 강 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조성된 군산시 관할의 향만임을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025년 청년 창업 지원 본격 착수

사업화 자금 지원·전문 창업 교육·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제공

익산시가 올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익산형 로컬 창업스쿨’을 시작으로 ‘청년 천국’ 실현을 위한 여정에 나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청년창업 혁신 거점’ 조성을 비롯해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창업가들의 성공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시는 창업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익산형 로컬 창업스쿨’의 운영사를 이달 내 모집하고, 3월부터는 ‘익산형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익산형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맞춤형 창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형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균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기술사업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익산형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기술기반 청년 창업가들에게 평균 3,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투자 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우수 기업에는 투자 유치 기회를 마련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5년 지향산업활성화 계획 본격 추진

‘2025년 제1회 정읍지향 농촌융복합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정읍지향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읍시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지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사업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제1회 정읍지향 농촌융복합사업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변경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승인했다. 운영위원회는 민·관·산·학 및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향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배농가 생산자 교육 ▲사업주체 역량 강화 ▲가공상품 판매 촉진 등 실질적인 사업 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비한 지향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향의 인지도 제고와 시장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TV 홈쇼핑, 지역 축제, 해외 수출 등을 활용해 지향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한다

설립 36년된 기존 센터 노후·협소 한계…연면적 2,508㎡ 규모로 새 단장
민원실·대강당·북카페·체력단련실 등 복합 서비스 공간 조성

완주군 화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된다. 13일 완주군은 올해로 설립 36년을 맞는 화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상당부분 낙후되고,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협소해 신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해 복지·문화·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 탈바꿈된다.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한 화산면 화평리 582-5번지 일원에 들어설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2,508㎡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대강당, 북카페, 공유주방이 지상 2층에는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선다. 군은 오는 26일 기공식을 갖고



13일 완주군은 화산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화산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제63회 군민의 날’ 다채롭게 준비

민속놀이·군민화합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4월 15일 전국노래자랑 열려

순창군이 오는 4월 18일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서 ‘제63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전통문화의 정취를 담은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화려한 축대행렬이다. 여기에 군민화합 기원제, 육전 줄다리기 등 전통 행사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어울마당과 골목페스티벌이 더해져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군민화합음악회는 군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순창군은 현재 음악회 개최를 위한 제안을 공모 중이며, 2월 17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21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민화합음악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군민



순창군은 오는 4월 18일 제63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들이 선호하는 유명 가수들의 무대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는 순창군민의 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오는 4월 15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려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예정이며, 18일에는 구곡순담 100

세 잔치가 개최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축하와 감사의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양지전에서 열리는 봄나물축제 순창의 싱그러움 봄 정취와 함께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쉽게 신원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분증 지참 신청…IC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직접 등록 가능

남원시가 오늘부터 남원시민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세 이상인 남원시민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남원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무료 발급된다.

2월 14일부터 전남·북, 대구, 대전, 울산, 강원, 경남·북, 제주에서 전국발급 1단계가 시행되나, 전국발급 4단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

지센터에서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 스스로 발급해 사용하려면,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민원인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발급까지 약 3주가 소요되며, IC 주민등록증 수령 시에는 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신청 비용은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외에 5천원이 추

가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한 번도 발급하지 않은 최초 발급 신청자는 무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공공기관 및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할 때, 편의점 등에서 성인 확인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민원인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자 모집

순창군이 지역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영양플러스 사업(보건의료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친환경농산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유기·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꾸러미가 제공된다. 지원 금액은 연 48만 원이며, 이 중 자부담 9만 6천 원이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되 자체

한 사항은 순창군 친환경농업팀(063-650-5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학교박청소년센터,광한루사진관과 협약

검정고시 응시 사진 촬영 지원…청소년 복지 향상 협력 구축

남원시가 위탁한 사단법인 CYA(기독교청소년협회)가 운영하는 남원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일신)는 지난 12일 광

한루사진관(대표 안필립)과 검정고시 응시에 필요한 원서접수 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해 ▲청소년의 검정고시 응시 지원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지원 협력 ▲상호발전과 공동목적을 이루는 사업추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광한루사진관 대표 안필립은 “이번 협약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원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상반기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건강지도자’ 모집…주민주도 건강지킴이 활동

완주군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지도자’를 공개모집한다.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해 18명의 건강지도자를 양성해 100여 명의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도왔다.

모집 대상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강지도자에 선정되면 ▲주민주도 보건사업 이해 ▲건강지도자의 역할

/완주=김명곤 기자

과 자세 ▲주민조직 활성화 방법 ▲지역 건강현황 파악 및 실천전략 수립 등의 양성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 및 건강관련 정보 제공, 홍보 등의 건강지킴이 활동을 수행한다.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1일까지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063-290-3134)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연 보건소장은 “건강지도자가 주민주도 보건사업의 활성화에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 매니페스토 실천교육 실시…공약 이행 박차

순창군이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연초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서별 공약사업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매니페스토 이해와 중요성,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 방안과 평가 안내 등 공약 담당자의 공약 실천역량과 달성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순창군은 2024년 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5개 분야 79개 공약사업 중 52개 사업을 완료하며 평균 이행률 87.5%를 달성한 바 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공약사업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약사업 달성을 도모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 달성을 비롯,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아동부터 부모까지 온 가족 교육·체험 확대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에서는 푸른 뱀의 해 2025년을 맞아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남원시육아종합센터에서는 기존 운영 중인 프로그램 외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유아 수요가 많은 국악 프로그램을 하원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변경했다. 또한 지난해 참여도가 좋았던 토요일 원데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증설했다.

남원시 내 예비 부모 및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공통 부모교육과 조부모 대상, 예비 학부모 대상 등 양육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음악회, 연극 등의 다

양한 문화행사 진행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특화사업으로 전문상담 지원을 시행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고 양육방식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이맘행복누리센터에서는 작년 교육비를 받아 진행하던 유아판소리, 장구놀이 프로그램을 지역 특색사업으로 지정해 무료운을 시작했으며, 새로운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영어 스토리텔링, 동화미술, 성장마사지를 추가 신설해 영유아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부모성장 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 줌바댄스, 난타, 성인영어를 신규 개설했다. 여름·겨울방학,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특별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주)대주축산 최희영 대표, 남원 ‘고향사랑’ 1천만원 기부

(주)대주축산 최희영 대표가 지난 11일, 남원시(시장 최경식)에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을 기부하며 ‘2년 연속 기부’, ‘누적금액 1천5백만원’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최희영 대표는 시 관계자에게 “평소 취약계층 복지에 관심이 많아 기부 담례품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부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3백만원 상당의 담례품 역시 관내 취약계층 아동 등에 현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과 담례품은 남원시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육성과 보호에 사용돼 지역발전의 토대를 잘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담례품(기부금 30% 이내)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남원시는 기부자가 특정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해 ‘2026년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 지원’을 목표로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의회 제안 ‘공유우산’ 시행…시설 5곳 비치

완주군은 오는 15일부터 관내 청소년 시설 5개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유우산 서비스를 시행한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공유우산 서비스는 2024년 청소년 정책 발표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의회 고산권역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불규칙한 날씨 패턴으로 인해 우산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분실하는 사례도 많아지자 청소년 의원이 적극 제안했다.

군은 이번 정책을 시행하며,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우산 서비스 정책을 제안한 2024년 어린이 청소년의회 고산권역 대표 의원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돼서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다”며 “올해도 어린이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제안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유우산 서비스는 공유경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소방 시설 훼손 신고포상제 운영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서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비상구 및 소방시설 주변 적치물 방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접수는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 1회당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며, 동일인 연간 포상 한도는 50만원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중복 신고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주상 서장은 “신고 참여를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최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 익산예술의전당서 공연 펼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가 익산에 온다.

익산예술의전당은 2000년 한국 초연 이후 누적 공연 1,500회, 누적 관객 154만 명이라는 기록을 가진 뮤지컬 '시카고'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시카고'는 29명의 배우와 15인조 라이브 빅밴드, 17년간 손발을 맞춘 스태프가 함께한다. 특히 역대 최고의 캐스팅인 최정원, 윤공주, 아이비, 박건형, 김영주, 김경선, 차정현, S.J. KIM 등 쟁쟁한 배우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함께하게 된 17명의 앙상블 배우가 합류해 한층 더 뜨겁고 깊어진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카고'는 1975년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였던 '밤 파사'와 '존 칸터', '프레드 엠'에 의해 뮤지컬로 제작된 이후 1996년 연출가 '윌리 바비'와 안무가 '앤 레인킹'에 의해 각색된 작품이다.

3일간 진행되는 시카고는 대표 넘버 '올 댓 재즈(All that jazz)'로 화려한 시작을 열고, 공연 내내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동상면 지역사랑봉사단, 주민들 위한 봉어빵 나눔

완주군 동상면 지역사랑봉사단(단장 백용기)이 지난 12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복가득 봉어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사랑봉사단은 따끈하게 구워진 봉어빵을 마을 경로당에 전달했다.

백용기 단장은 "봉어빵 나눔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며 "지역사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동상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봉사단이 되겠다"고 전했다.

황은숙 동상면장은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봉사단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봉사단이 사랑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대운산업개발, 군산시에 연탄 11,500장 기부

폭설·혹한 견디는 군산 성산면 저소득 23가구에 연탄 기탁

13일 군산시 성산면은 ㈜대운산업개발(대표 함경식)이 관내 저소득 23가구를 위해 연탄 11,500장(1천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운산업개발은 모래와 각종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지역업체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기부와 장학금, 쌀 기탁 등 선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모범기업으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올해 초 닥친 유례없는 폭설과 강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13일 군산시 성산면은 ㈜대운산업개발이 관내 저소득 23가구를 위해 연탄 11,5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동절기 연탄을 기부하는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도 나서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기도 했다.

함경식 대표는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우리의 이웃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돕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시, 28일까지 '춘향제 홍보 콘텐츠 공모전' 열어

창의성·완성도·활용가능성 등 4가지 기준 심사, 3월 10일 수상작 33팀 선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5월 개최되는 95회 춘향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홍보콘텐츠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입상자에게는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남원시장상, 남원춘향제전위원장상이 수여된다.

95회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및 요천면 일대에서 개최된다.

공모전은 영상, 웹툰, 자유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뉘며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수상은 제한된다. 영상과 웹툰 부분은 춘향제를 홍보하기 위한 완성된 디자인이나 영상,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해 제출해야 하며 자유부문은 제안, 아이디어, 캐릭터 개발 등 자유형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3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QR 코드를 통한 신청 접수 및 공모전 응모가 가능하다. 당선작은 이번 춘향제를 통해 홍보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게 된다.

접수된 참여작은 전문심사는 창

의성, 기획/완성도, 활용가능성, 주제 적합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진행되며 수상작은 총 33팀이 선정된다.

대상(1팀)은 3개 부문 통합 1팀을 선정해 상금 200만 원과 남원시장상을 수여한다. 최우수상은 3개 부문 각 1팀씩 상금 100만원과 춘향제전위원장상이 수여된다.

접수된 참여작은 전문심사위원 7인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수상작 발표는 3월 10일 홈페이지 게시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시 배준식-황순이 부부, 3천만원 상당 후원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13일 배준식(용지면 발전협의회 회장)-황순이 부부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용지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로 지난 7년 사이 가장 추운 '입춘(立春)'을 기록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서운 겨울철 추위를 버티고 있는 취

약계층 111세대에게 이달 중으로 신속히 2,800만원 상당의 등유와 연탄을 전달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회장은 "올 겨울 잦은 한파로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힘든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선물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서부레미콘 대표, 익산 나눔공간에 3백만원 전달

익산시는 서부레미콘(대표 김진수)이 시청을 방문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기탁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진수 대표는 "재해를 맞아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부레미콘은 왕궁면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로 2021년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반석로타리클럽, 삼학동에 220만원 상당 생필품 전달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군산 반석로타리클럽(회장 정전호)이 삼학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군산 반석로타리클럽은 지난 2023년 1월 18일 군산시와 복지증진 업무협약을 맺은 후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속적인 온정의 손길을 이어왔다. 이번에도 220만 원 상당의 라면과 김, 화장지 등 이웃돕기 성품(220만원 상당)을 삼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지난 12일 열린 기탁식에서 정전호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치 않고 손길을 내밀자는 로타리안의 정신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성내메디케어요양병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고창군 성내메디케어요양병원(이사장 김한결)은 성내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성내메디케어요양병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이번 기탁은 취약계층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고자 뜻깊은 마음이 담긴 기부로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현규 성내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시 범농협 임직원들,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참여

정읍시 범농협 임직원들은 13일 정읍농협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협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 농신보정읍권역 보증센터(센터장 이성진),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임직원 30여 명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김순기 지부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혈 캠페인을 통해 우리지역 헌혈 동참 문화가 정착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남영 조합장은 "헌혈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나눔"이라며 정읍시 "범농협 임직원은 어려운 이웃에게 적기에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랑의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겨울철 교통 안전 수칙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겨울용 타이어 활용 (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一事一言〉



입만 열면 거짓말...윤석열, 차라리 그 입 다물라(2)

송요훈
언론인

윤석열은 억수로 윤이 좋은 나이입니다.
불쑥 내뱉은 한마디의 말로 일약 스타 겸사의 반열에 올랐고, 그 덕에 검찰총장도 되고 양이 절대 부럽지 않은 일국의 제왕적 대통령도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우리가 속은 거였습니다. 그가 불쑥 내뱉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대통령으로 인간 윤석열을 겪어보니 그는 지독한 고집불통이고 지독한 청개구리였습니다. 대학생 때도 아버지에게 고무호스로 맞았더니 오죽하면 고무호스를 휘둘렀을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윤석열의 말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거친 말도 잘하고 욕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국힘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TV 토론에 나왔을 때, 그의 손바닥에는 왕(王)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일종의 부적과 같은 거죠.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을 넘는다는데 당연히 문제가 됐습니다. 미신을 믿는 거냐는 비난이 일자 윤석열 후보는 주일에 대형교회를 찾았습니

다. 전두환이 그래도 정치는 잘했다. 전두환은 정권 탈취를 위해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범입니다. 그런 전두환을 두둔하는 말을 했으니 그를 대선후보로 배출한 국힘까지 발각 뒤흔쳤지요.
그러나 윤석열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거였죠. 그랬는데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마녀사냥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이리때 언론도 윤석열 앞에서는 애완견으로 변했습니다.
입이 가뱌고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입방정으로 화를 자초하는 걸 '실화'라고 합니다. 역사책을 뒤져 보면 설화로 목숨을 잃은 사례도 많습니다.
대선후보 윤석열은 입방정으로 여러 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모른다... 대선후보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인데도 묻고 따지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상대 후보에겐 티끌만한 빌미만 발견돼도 태산처럼 부풀려 잘근잘근 씹기 좋아하는 언론이 윤석열에게 참 관대했습니다. 거짓 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대선후보 윤석열은 당선 인사에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

았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하고, 오냐 오냐 하니 할애비 수염 뽕고 상투 잡아 흔들다고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랬습니다. 후보 시절의 못된 버릇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했으니까요. 거짓말을 해도 언론이 비판하지 않으니 거짓말 면죄부를 받았다고 오판했는지 거짓말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든-날리면'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 윤석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금 행사에 가서 '48초 정상회담'을 하고 그 대가로 1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윤석열의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입니다. 알현인지 정상회담인지 아리송한 면담을 하고 나오면서 윤석열은 '바이든 쪽팔려서'라는, 전 국민에게 듣기 평가를 강요한 비속어 실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국민에게 사수를 말이라 하는 지루위마의 거짓을 강요했고, 실언을 최초로 보도한 MBC에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감정적인 보복을 했습니다. 기자가 보복을 당하는데도 대다수 언론은 침묵으로 권력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 버릇은 점점 고약해졌습니다. 거짓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 거짓이 들통나면 새로운 거짓을 창조하여 어제의 거짓을 덮으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말에선 겸손함이나 진지함이나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윤석열이

실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김건희 디올백을 예로 들어 볼까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하면 될 일을 모른 척하는 위장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합정 취재의 피해자라는 억지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서 그랬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종류를 바꿔가며 국민에게 환각제를 투입했지만 먹혀들지 않자 결국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를 했지만, 휘하의 진윤 검찰은 비난의 화살로 맞아 고슴도치가 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했습니다.
(계속)

사설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가 주는 기대감

전북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1GW 규모의 '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받았다. 기존 0.4GW 규모의 시범단지에 이어 확산단지가 확대되면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성된다.
이는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먼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북도는 2019년부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주민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특히 어업권 보호, 해양환경 문제 해결, 주민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단순한 정부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주민들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배당금 지급뿐 아니라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운영,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의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의 협力が 필요하며 사업 부지 확보와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전북도는 이미 풍황계측기 설치, 종량률 부두 지내역 조사 등을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며, 전북이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만큼, 이를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북도는 이번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할 뿐 아니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동반 성장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상풍력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생태계 보존과 재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번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 추가 지정은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전북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부, 기업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할 때다.



금요시선

인동초 / 송도 정 태 천

여기보세요
꽃이 피었어요
노란 인동초예요

햇살이 따사로운
고즈넉한 고향 마당에
인동초가 피었네요

힘든 겨울 지나고
희망의 봄이 왔다고
환하게 웃고있네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씨투에스금융디자인 대표이사
시집 3권 발간
CHEZ NOUS 301과 팔칼국수/여백의 미
(에스24에서 구입가능)

독자광장

불날 땐 뛰지 말고, 살피고 생각부터!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평소에 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를 가른다.
특히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대피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자.
자기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신속히 대피해

야 한다.
그러나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대피 공간이 없다면,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문 틈새를 젖은 수건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손이나 천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나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연기 유입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기의 이동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뒤, 안내 방송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들어온다면 대피를 시도해야 한다.
연기가 심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문 틈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평소 피난 경로와 대피 방법을 숙지하고,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하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단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 어디서든 대비하는 습관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군산소방서 대응예방과 한지민 소방위

문화재열전



불주사 대웅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불전

-지정일 - 1985년 8월 16일

-소재지 -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836번지

-시대 - 조선시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열린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종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익산지국 010-9560-3075	정읍지국 010-2800-2934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승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복한 오늘, 미래를 여는 고창복지 실현

열정과 희망으로 함께 성장하는 고창! 노후가 든든하고 장애인이 편안한 고창!

2025년 고창군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장애인복지 혜택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며, 더욱 성장한 복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5년 고창군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정에 힘을 더하다. 활력수당 확대와 상해보험료 지원

고창군은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을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장중심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지급한다.

전일제 근무자(연10만원)에게만 지급했던 활력수당을 반일제 근무자(연5만원)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 또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종사자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고창군은 종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기부와 나눔 활성화로 희망을 나누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고창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금된 성금을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고창군 저소득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명절 및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고,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며, 맞춤형 전문봉사단 운영, 이동세탁·목욕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내 온기를 전하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향상 기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원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6.42% 인상됐다. 생계급여 기준에서는 차량 환산 기준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량 가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각각 1.3억 원, 12억 원으로 조정되며, 조사 기준과 실생활 간 격차를 완화했다.

신설된 재가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정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실시

고창군은 2025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실시한다. 전복 군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2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5급)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월 1~2회 방문해 방문진료·간호,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정기적 모니터링 등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대산연합의원(563-5639), 현대의원(563-6035)에 상담 받으면 된다.

◆ 빛나라 청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고창군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3741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 외 4개소의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2025년부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복지보안관 등 958개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 어르신들의 안전 지킴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로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하며, 올해 스마트워치 160대를 추가 설치해 총 1298가구를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34억의 예산으로 2,310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생활지원사 150여 명이 방문해 말벗 및 안전확인을 지원하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시간을 월 20시간으로 확대한다.

간으로 확대한다.

◆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

고창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도는 전년(2024년) 대비 5명이 증가하여 총 66명이 복지행정업무 지원, 권익옹호 등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한다.

2025년부터 장애 미등록아동의 발달재

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장애아동 및 미등록아동은 간소화된 절차로 언어, 미술심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촘촘히 설계돼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함께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

전북타임스신문

전북도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